

제17회 전국 초등학교 대상 금연글짓기 대상작 할머니 참사랑의 맛!

김보미 사천 축동초등학교 6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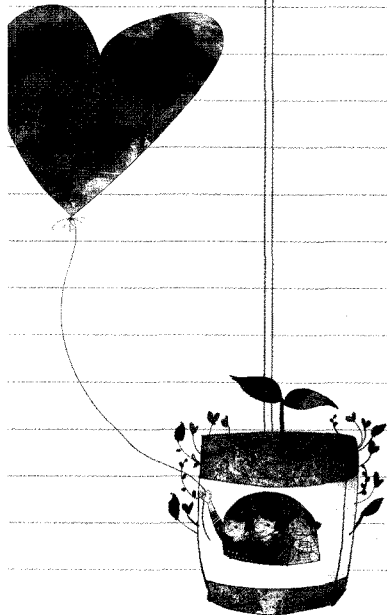


어느 때와 달리 아침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집을 나섰다. 어젯밤 기침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늦잠을 잤기 때문이다. 동네 어귀에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려 준 친구가 반가워 부둥켜안았다. 그러나 친구는 반갑지 않은 듯이 오히려 얼굴을 돌리며 찌푸렸다. 등굣길의 나의 무거운 마음은 학교에까지 이어졌다. 지루한 하루의 학교 공부를 마치고 하굣길에 용기를 내어 얼굴을 찌푸린 까닭을 물었다. 친구는 망설이다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내 몸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다고 미안해했다. 그때 나는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어젯밤에 오랜만에 찾아오신 손님 때문에 지난밤 나는 할머니와 함께 잠을 자야만 했고, 할머니께서 피우신 담배 때문에 기침도 하고, 그 냄새가 내 몸과 옷에 베었다는 사실을 그때야 깨달았다. 나는 친구에게 변명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밥을 먹고 할머니께서는 또 담배를 피우셨다. 나는 할머니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심하게 기침을 해 댔다. 그리고 울면서 할머니 담배 때문에 친구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는 얘기도 했다. 할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손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담배를 이제는 끊으시겠다고 식구들과 약속을 하셨다. 그러나 며칠이 지났지만 할머니께서는 담배를 완전히 끊지는 못하신 눈치였다. 그동안 모아 두었던 용돈으로 할머니 방에 박하사탕 2봉지를 사다 놓았다. 할머니께서는 동생을 통해 이 사실도 알게 되었다.

다음날 할머니는 아버지께 담배를 끊게 해 달라고 도움을 청하셨다. 아버지께서는 읍내 보건소를 찾아가셨다. 보건소 의사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할머니를 금연 클리닉에 참여시켰고 며칠마다 침도 맞으시고, 패치도 붙이시고 여러 가지 금연 보조제를 사용해가면서까지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을 참아내고 계시는 것이었다. 나는 손녀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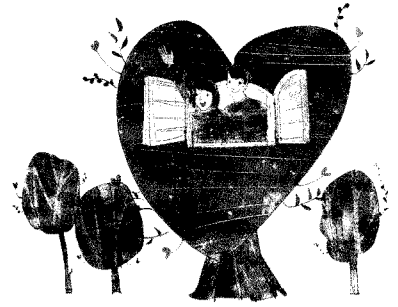
며칠 뒤 멀리 계시는 고모님께서 할머니를 뵈러 오셨다. 할머니는 고모님께 담배를 끊으셨다고 자랑을 하셨다. 고모님은 몇십 년을 피우던 담배를 끊으셨다는 할머니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으셨다. 할머니는 고모님과도 틀림없이 담배를 끊고야 말겠다고 약속하셨다. 나에게도 지켜보라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다. 해질녘에 고모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 어머니 장한일 하셨네!” 하시면서 용돈을 할머니 손에 꼭 쥐어주시고 가셨다. 저녁밥을 먹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때서야 할머니께서는 낮에 고모님께서 다녀가셨다는 얘기와 용돈을 받았다는 것도 말씀하셨다. 할머니께서는 “보미의 덕택으로 용돈을 두둑하게 받았어!” 하시면서 나에게 나누어 주시고, 나머지는 어머니께 드리면서 과일을 사오라고 하셨다. 어머니께서 동네 슈퍼에 나가셔서 노란 참외 한 바구니를 사오셨다. 식구들끼리 모여앉아 깎아 먹은 참외는 정말 꿀맛 같았다. 지금까지 먹었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맛이였다. 바로 할머니가 손녀를 사랑하는 ‘참사랑의 맛’ 그것이였다. 옆에서 뭐든지 도와드려야겠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내 할머니’



제17회 전국 초등학생 대상 금연글짓기 대상작

행복나무

이광연 남양주 가곡초등학교 3학년



우리 집 거실에는 3년 전에 이사 온 커다란 행복나무가 있다.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굵다란 나무기둥에 이파리만 몇 개 있었는데 지금은 종이새가 동지를 틀 수 있을 만큼 잎이 무성해져 있다. 이 행복나무는 아빠의 금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가 선물한 것이다. 행복나무의 잎처럼 아빠의 건강도 그만큼 푸르러 지기를 바라면서.

“광연아, 오늘 학교 가지 말고 엄마랑 병원 가야 해?” 학교를 안 간다는 말에 신이 났지만, 병원이란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엄마, 나 안 아픈데.” “광연이가 아플 것 같아서 병원 가는 거야. 아빠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결핵이래. 그 병은 전염성이 있어서 가족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한대.” 그제야, 난 아빠가 요즘 많이 피곤해하시며 아침밤도 반밖에 드시지 않았다는 것이 생각났다. “아빠는 만날 술이랑 담배를 먹으니 밥맛이 없죠. 저한테 달콤한 과자가 아빠에게는 달콤한 담배인가 봐요.”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도 아빠의 몸에는 늘 담배 냄새가 났다. 내 코를 지독하게 괴롭히는 담배 냄새가 싫어서 아빠에게 잔소리했다. 아빠는 술을 드시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담배를 피우신다.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베란다에서 피시지만 담배를 피우고 들어 오시는 아빠의 얼굴과 손에는 담배의 그림자가 가득했다. 매년 1월 1일 떠오르는 해를 보며 “올해는 꼭 금연해야지.” 라는 아빠의 소원도 3일이 지나면 담배의 검은 그림자 앞에서 사라져 버린다.

결국, 담배 그림자는 아빠의 폐에 결핵이라는 나쁜 병균을 주었고, 나와 엄마, 그리고 아직 3살 인 동생 서연이를 병원에서 검사까지 받게 했다.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너무 속상했다. 나쁘기만 한 담배를 끊지 못하는 아빠가 너무 미웠다. 한쪽 팔에 링거를 꽂고 누워 계시는 아빠를 보자 더 화가 나서 아빠에게 소리쳤다. “아빠는 어른이면서 담배 그림자 하나 못 떼어내세요? 아빠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불행만 가져다주는 담배를 왜 못 끊느냐고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아빠의 간절한 눈빛 때문이었을까? 아빠도 정말로 담배를 끊고 싶었는데 너무 힘이 든다는 마음이 나에게 전해져서일까? 나는 울면서 아빠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아빠,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쁜 담배 그림자를 떼어버려요. 아빠 혼자 힘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빠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빠도 그러겠다고 대답해 주었다. 그날 돌아오면서 나는 결심했다. 아빠를 위해 아빠의 금연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일주일 후 난 아빠의 퇴원 기념 선물로 꽃집에서 행복나무를 하나 샀다. 돼지 저금통에 돈이 많지 않아서 큰 나무를 사지는 못했지만, 이 조그마한 행복나무가 우리 가족의 행복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광연아, 우리 행복나무 집이 너무 작은 것 같구나. 우리 행복나무 분갈이해줄까?” 아빠의 금연이 행복나무의 몸과 우리 가족의 사랑을 3년 동안 쉼 없이 키워 주었다. 이제는 아빠에게 담배 그림자가 아닌 행복나무의 푸르름이 있어서 너무 좋다. 아빠가 금연으로 행복나무를 키웠듯이, 다른 아빠들에게도 행복나무를 선물하고 싶다. MEDICHECK

